



소비자의 잔류농약 우려 실제와 크게 달라



■ 홍보부

잔류농약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우려는 전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소비자의 실제 수확 농산물의 잔류분석 결과에서 산출되는 양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한 정보를 얻을수 있어

우리들이 일상의 식사를 통하여 식품에 잔류한 농약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5년부터 「농약의 1일 섭취량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생선이나 고기, 수입 및 가공식품 등 대부분의 식품이 대상이 되며 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의 식생활에 따른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영양 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일상의 식생활에 가장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영양 조사에서는 전 식품을 「쌀」, 「무」, 「쇠고기」, 「맥주」 등 110종으로 분류하고 한국인이 매일 어떤 종류의 식품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초로 음식 재료를 파악한다. 생으로 먹는 것 이외는 실제의 조리나 준한 처리를 한 음료수 포함 18개의 식품군마다 농약의 유무를 분석한다.

안심할 수 있는 결과

2001년도까지의 7년 동안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96종류의 농약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14종류였다. 14종류라서 염려될지 모르겠으나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정말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이다. 잔류농약 모니터링은 시장에서 유통 중인 신선 농산물을 어떤 가공이나 세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한다.

반면 실제로 우리가정에서 섭취하기 위해 세척, 조리, 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섭취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잔류농약 섭취량을 조사하는 것을 '식이섭취량조사(TDS, total diet study)'라 한다. 식이를 통한 농약섭취량 조사는 미국을 비롯한 선

진 세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식이를 통한 농약섭취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약의 식이를 통한 섭취량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농약의 종류 및 섭취량, 농약 섭취근원이 되는 식품 등을 파악하여 농약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식이를 통한 농약 섭취량 조사에서 시료의 전 처리는 농산물을 세척, 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의 상태(ready-to-eat)로 하여 잔류농약의 함량을 측정하므로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농약의 종류 및 양을 비교적 현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다.

7년간 수행된 이 조사는 우리나라 10개 도시에서 국민 다소비식품 110종을 채취하여 가공식품은 그대로, 농산물은 식이 형태를 고려하여 물 세척, 껍질 벗기기, 가열 조

리 등을 실시한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4종 농약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들 농약의 잔류량과 해당식품의 섭취량에 의해 계산된 농약 섭취량은 무시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 다소비식품 섭취시 잔류농약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섭취되지 않았다. 섭취되는 것으로 밝혀진 14종 농약도 극히 미량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 소비자가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잔류농약에 대한 이미지가 「농약이 작물을 통해서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미지와 실제 농산물의 농약 잔류실태 및 농약섭취 상황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검증해 보면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및 사람의 잔류농약 섭취량은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바른 농약 사용법

- 농약은 라벨(포장지)을 잘 읽은후에 사용하십시오
- 농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적용대상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빈병(포장)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적절히 처리하십시오

